

조각가 엠마 하트(b.1974)는 세라믹을 주 매체로 다루며, 조각을 통해 어떤 상황을 만들고자 한다. 작가는 런던 노동자 계층 출신으로 중산층 이상이 주류인 영국 예술계에서 활동하며 말과 말하는 방식이 어떻게 우리를 형성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이를 조각을 통해 표현한다.

말하는 그 순간 엠마 하트 <BIG MOUTH>



엠마 하트 개인전 <BIG MOUTH>
2021.11.24~2022.1.23 바라캇 컨템포러리
서울 종로구 삼청로 7길 36
T.02.730.1948
H.www.barakatcontemporary.com



(앞) 핑거포스트 작품 중 Look You Up And Down | 2021
(뒤) 타겟 작품 Big Mouth 설치 (부분) | 2021



「Social Climber」(부분2) | 흑백 석기 | 목재 | 가변크기 | 2021



메가폰 시리즈 「Feedback」 50cm×50cm×50cm | 검은 석기, 아크릴로 채색된 도기 | 2021



「Bat」 70cm×40cm×40cm | 세라믹 (색화장도를 입힌 도기) | 2020

엠마 하트의 조각은 소통과 관련된 주제를 익숙한 사물로 은유한다. 이 조각들은 정적인 대상이 아니라 보는 이를 어떤 입장에 처하게 하며, 관객의 영역을 침범하고 그들에게 ‘들어간다’. 작가 개인의 경험과 사회에 대한 관찰을 담고 있는 작품은 공간에서 상황을 펼쳐내어 이상하면서 웃기기도 한 현실을 비틀어낸다. 하트는 예술이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이어져 관객과 생동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이는 그가 세라믹 매체를 다루는 방식과 그의 작업 세계의 변화에서 관찰된다.

엠마 하트는 지속적으로 작품을 통해 일상의 경험이 매 순간 재창조되고 재해석되는 작업을 하고자 했다. 작가가 본격적으로 세라믹을 접한 것은 2012년이었고, 이후 매체를 독학하며 실험적으로 세라믹, 사진, 영상을 포함한 설치작품을 선보였다. 이런 시도는 전시《Dirty Looks》(2013)와 《Giving It All That》(2014)에 잘 드러나 있다. 사진으로만 이루어진 전시《Car Crash》(2011, 2016)에서도, 과거의 교통사고를 당장 옆에 있는 일상의 사물을 통해 현재진행형으로 불러오는 과정을 담았다. 현재 세라믹 조각가로서 확고히 작업 세계를 구축한 작가가 거쳐온 이런 과정은, 유동하는 삶과 현실의 양상을 복합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작가가 자신의 매체를 찾아간 길을 보여준다. 하트에게 있어, 예술에 대한 경험도 단순히 예술적 표현의 결과물을 고요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작품이 살아있는 공간 속에서 우리가 마치 일상에서 그러하듯, 맞닥뜨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을 통해 자신을 재형성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특히, 엠마 하트는 언어적, 비언어적 기호 이면의 복합적인 현실 속 의사소통을 다룬다. 작업은 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든 어울리지 않는다는 자괴감, 말과 행동을 꾸며야 하는 압박감과 불안을 담아낸다. 이는 영국의

노동자 계층 출신인 작가가 중산층이 주류인 영국 예술계 안에서 활동하며 언어와 말하는 행위를 더 의식하게 된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작가는 영국사회가 자신이 입을 열고 말을 시작하면 그 즉시 어떤 계층 출신인지 구분이 될 정도로 계층별로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양식이 나누어져 있다고 설명한다. 비단 영국사회 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과 사회적 상황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자연스러운지 결정하는 ‘문화자본(Cultural Capital)’¹⁾의 존재는 작가가 관심을 두고 작품을 통해 드러내는 부분이다. 그의 작품은 언어를 비롯한 소통체계가 가진 구속력을 수면 위로 드러내며, 그 아래에서 지배되고 있는 생활, 소통, 관계, 감정을 보여준다. 언어적, 비언어적 기호의 수행을 통해 만들어진 현실과 이에 반응하여 우리 자신과 현실이 또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은, 작가가 세라믹으로 작품을 만드는 과정과 맥락을 함께 한다. 작가는 “세라믹 재료는 그릇이 되고 싶어하기 때문에, 작품은 재료와 씨름하여 비정형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표현한다. 즉 우리가 일종의 ‘행동 관례’로 받아들여지는 언어적, 비언어적 기호를 따라가며 일상을 꾸리는 것과 같이, 재료는 작가가 만지고 모양을 잡아가는 방향을 강제로 따라간다. 반면, 결국 언어와 행동을 통해 자신의 본질이 드러나듯, 재료도 그 특성을 드러내게 된다. 결국 세라믹은 작가에게 있어 언어를 통해 우리가 자신을 구축하고 현실에 대응하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수행적 매체인 것이다. 한국에서의 전시《BIG MOUTH》(2021)에서 작가는 세라믹 매체 중 석기(스톤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며 이런 합의와 저항을 그대로 드러냈다. 작가는 소성 과정에서 때때로 석기가 휘어지고 갈라지는 것을 그대로 두었다. 유약을 칠하고, 무늬를 그리는 등 장식하는 것과 다른 방향을 찾고자

한 작가는, 재료 자체의 특성을 살려 구축하고 건축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만들고자 했다. 이는 작가가 막스마라 여성 미술상 수상의 일환으로 제작한 조각 설치《Mamma Mia!》(2017)의 작품을 인간의 행동 패턴을 시각적 패턴의 무늬로 만들어 핸드페인팅한 것과는 또 다른 접근이며, 이후의 작업에서도 보인 핸드페인팅과도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작업을 완성하는 과정이다.

엠마 하트의 첫 한국 개인전《BIG MOUTH》(2021)는 작가의 작업 세계를 집합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독특한 측면을 더한다. 흑백 작품은 석기 고유의 색이며, 유약 없이 완성되어 직설적인 느낌을 준다. 전시 작품은 3차원 조형인 동시에 평면적으로 디자인된 도안의 모습을 갖고 있다. 작품이 표현하는 기능과 모양이 무엇과 닮았는지 그 상징성을 알아보는 이유와, 그에 다시금 ‘반응하는’ 과정이 전시에 펼쳐진다. 직설적으로 소통하는 작품의 기호적 모양새가 오히려 관객과 더 내밀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작품은 일종의 언어유희적 기호로서 말을 걸고, 그 기호와 상징을 관객들이 알아보는 순간, 소통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언어의 이면을 해학적으로 던져 관객을 당혹감에 빠지게 한다.

¹⁾ 계급을 구분짓는 무형의 자본으로, 피에르 부르디외의 문화자본 개념은 특정 사회계층이 가진 취향, 말투, 자세, 옷차림, 매너와 같은 상징적 요소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타겟 작업 「Big Mouth」(부분) 가변크기 | 흑백석기 | 2021

스피치 버블 시리즈 「입방정 Loose Lips」(측면)
유약과 색화장도를 사용한 세라믹,
지름 60cm×깊이 25cm | 2021



표지판을 따른 3점의 [핑거포스트]작업²은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는 행위'와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가진 상징적 힘을 조각으로 형상화하며, 시선과 방향에 관련된 관용적 표현을 상황으로 구현한다. 흑백석기로 만들어진 손의 손가락들은 관객이 따라야 하는 수많은 지표인 동시에 관객의 말, 행동, 외양을 짚어내는 손가락이다. 관객은 손가락이 가리키고 보는 것이 무엇인지 의식하게 된다. 벽에서 튀어나와 관객을 향해 소리를 내지르는 4점의 [메가폰]작업³은, 메가폰이 상징하는 수행적 행위를 기호처럼 만들어 단순 명쾌한 구조와 선명한 색으로 표현했다. 흑색 석기로 만들어진 메가폰에 대고 말하는 얼굴은 단정하나, 내지른 소리는 흐트러지고 뒤틀려 있다. 해당 작품을 채색한 방식은 성형된 세라믹을 양동이에 고정한 뒤, 페인트를 넣고 돌려서 색을 입히는 것이었다. 이는 말이 메가폰 속을 거치며 꼬이는 과정을 실제로 반영한 작가의 방법으로,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 나와버린 당혹감, 내 생각과는 다르게 정제되지 못한 표현이 쏟아져 나오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 상황을 하나의 표상으로 관객에게 던지며, 공개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발화할 때 생기는 자의식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도록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타겟]작업<Big Mouth>(2021)는 표적을 은유한 얼굴들, 또는 얼굴을 은유한 표적으로, 중심의 빨간 입들은 관객에게 소리를 내지른다. 얼굴들이 내는 소리를 맞으며 위를 보는 순간, 꽃힌 화살에 달린 수십 개의 초록색 눈알이 내려다본다. 작품은 말을 하는 순간 자신의 배경, 계층, 그리고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모두 드러나게 되는 과정에서 남의 시선을 받는 상황을 제시한다. 흑백석기를 겹쳐서 만든 타겟들은, 단순하고 분명한 색과 선을 띄고 있어 여러 개의 도안이 벽에 그려진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표적과 이를 맞추는 화살이 가진 관계성을 상징적으로 이용한 이 작품은 소리를 내면서 공간 안으로 자신을 내밀며, 말하는 행위가 가진 파급력과 부담감을 떠올리게 한다. [배트] 작업 시리즈는 '사람을 이리저리 처댄다'는 뜻과 '말을 주고 받는다'는 두 의미를 가진 어구 'bat around'를 탁구채를 든 팔로 형상화했다. 배트는 벽에서 튀어나와 관객을 치려고 한다. 작업은 말을 주고받는 상황을 서로를 치는 상황으로 표현하며 대화 과정에 내재된 일종의 폭력적 양상의 모순을 관객이 느끼게 한다. 더 나아가, 특정 언어, 비언어적 기호와 양식을 통해서 남을 분류하고, 타인이 그 '표준'에 맞추어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암묵적 압박을 드러낸다.

만화의 말풍선을 차용한 [스피치버블] 시리즈는, 실제로 입을 열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말한 것처럼 만들 수 있는 말풍선이 기호로서 가진 상징적 힘을 차용한 작업이다. 전시된 말풍선은 결과 속이 분리된 얼굴이기도 한 형태로, 말풍선 속 단어와 구절은 표정이 된다. 말풍선의 바깥은 유약을 칠하여 표면을 꾸민 모습을 보여주며, 속은 유약 없이 색이 들어간 화장도를 입힌, 더 날 것의 내면을 표현한다. 조각이 말을 하는 방식에 관해 생각한 작가는 상징적 기호를 작품으로 구현하여, 관객이 원래 본인이 하는 유형의 말이 아니더라도 말을 달아준다. 관객은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말을 해야 할 때, 혹은 자신을 너무 드러내는 말을 했을 때 분열되는 상황을 경험하며, 장난스럽지만 두려운 상호작용의 일부가 된다.

전시 《BIG MOUTH》는 '경험을 생성하는' 작업을 만들고자 하는 엠마 하트의 작업세계를 이어가며, 말과 말하는 방식과 우리의 삶과 현실이 얽히는 과정들을 때로는 자조적으로, 때로는 개구지게, 때로는 기이하게 펼쳐낸다. 엠마 하트의 작업은 전통적

조각으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관객의 참여와 관심을 끊임없이 요청한다. 작품은 그들과 관객 사이의 개념적, 물리적 공간을 침범하며 조각 예술품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 속에 안주하고 있지 않다. 제시된 작품들 또한 서로 상호작용하며, 관객은 기존의 수동적 관찰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작용의 공간에서 작업의 '말을 들으며' 교차로에서 자신의 현실과 감정을 실시간으로 재생산한다. 엠마 하트는 만져지지 않지만, 그 존재감은 우리의 정신과 몸까지 지배할 수 있는 언어적, 비언어적 체계를 작품으로 등장시키며 유머, 공포, 불안을 섞어 상징과 기호가 날뛰며 뒤섞이는 시공간에 우리를 초대한다. 📷

글. 허미석 큐레이터 사진. 바라캇 컨템포러리 제공 촬영. 전병철

²) <You're All over the Shop>(2021), <Social Climber>(2021), <Look You Up and Down>(2021)
³) <Feedback>(2021), <Crying Shame>(2021), <Drama Queen>(2021), <Spoiler>(2021)